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운



키움증권

미 증시, 6월 FOMC 대기심리, 반도체 차익실현 등으로 혼조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6일(화) 미국 증시는 미-이란 휴전 합의 기대감발 WTI 추가 약세(-5.1%)에도, 6월 FOMC 대기심리로 인한 마이크론(-6.2%), 인텔(-8.5%) 등 반도체주 차익실현, 스페이스X(+4.8%) 관련 테마 및 레버리지 ETF, 옵션 출시 등에 따른 해당 주식의 편입 수요가 여타 테크주에서의 자금 이탈을 초래한 여파로 혼조세 마감(다우 -0.6%, S&P500 -0.6%, 나스닥 -1.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7%).

이제 시장은 6월 FOMC에 집중할 예정. 6월 동결은 유력한 만큼, 점도표상 26년 말 중간값 변화 여부, 케빈 워시 신임 연준의장의 첫 기자회견이 중요할 전망이다. 현재 Fed Watch 상 12월 금리인상이 컨센서스로 형성됐다는 점을 고려 시, 지난 3월 FOMC에서 연내 1회 인하기로 제시했던 점도표는 매파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가령, 1) 점도표 연내 1회 인상으로 변경, 2) 점도표 연내 동결 + 매파적인 기자회견 등이 그 변화의 시나리오들에 해당.

여기서 이미 주식시장이 6월 FOMC가 매파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선제적으로 가격에 반영해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에 더해 에너지 인플레이션 불안을 초래한 WTI 유가 역시 70달러대로 레벨 다운된 점도 3, 4월 FOMC에 비해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연준의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

이는 6월 FOMC에서 a) 점도표상 연내 2회 인상, b) 시장 컨센서스인 12월보다 빠른 인상 신호 제시(ex: 9월 FOMC 등), c) 포워드 가이드런스 전면 폐지 등 쇼크가 나올 확률이 낮음을 시사. 결국, 전일 6개월 만에 금리인상을 단행했던 6월 BOJ 회의 이후 양호했던 시장 반응처럼,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의 매파 결과만 나오더라도, 주식시장은 6월 FOMC를 중립 수준의 재료로 소화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전일 국내 증시는 미-이란 MOU 전자 서명에 따른 유가 추가 약세, BOJ 회의 안도감, 미국 반도체주 동반 랠리, 방산주 수출 계약 모멘텀 등에 힘입어 반도체, 방산, 은행, 조선 업종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8,700pt선을 회복한 반면, 코스닥은 대형주 선호 현상 반대급부로 하락 마감(코스피 +2.1%, 코스닥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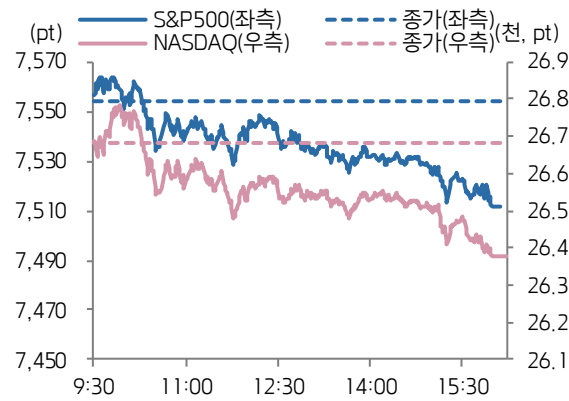
금일에는 WTI 유가 급락, 달러/원 환율 하락에도, 6월 FOMC 관망심리, 미국 반도체주 숨고르기 여파 등으로 하락 출발할 전망이다. 장 초반부터 전일 국내 증시에서 급등했던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단기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 상존. 다만, 현재 전반적인 증시 환경은 중립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 시, 장중 여타 업종으로 순환매 장세가 전개되면서 낙폭을 축소해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한편, 수급 측면에서는 코스피가 최근 8,700pt까지 회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매매 패턴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 실제로, 외국인은 5월 7일 이후 6월 11일까지 24거래일간 코스피를 연속 순매도했지만(누적 순매도 금액 75.6조원), 6월 12일을 기점으로 3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전환한 상태(누적 순매수 금액 4.8조원).

물론 코스피가 8,700pt를 넘으며 전고점 부근에 와있는 시점에 외국인이 얼마나 코스피를 더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해볼 수 있음. 또한 이들의 누적 순매수 4.8조원 중 반도체(+2.0조원), IT하드웨어(+1.7조원) 두 개 업종의 비중이 약 77%에 달하는 만큼, “본격적인 주도주 베팅” 혹은 “주도주 숏커버링”에 대한 시장의 의견이 정리되는데 까지도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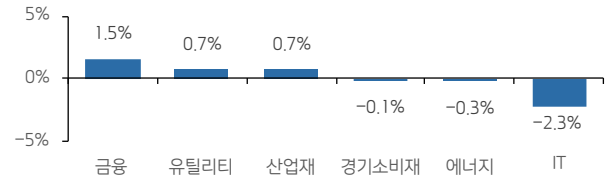
그러나 미-이란 휴전 돌입에 따른 유가 하방 압력, 달러/원 환율 폭등세 진정 등 5~6월 초에 비해 매크로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볼 필요. 지난 한 달간 외국인의 순매도 배경은 반도체 집중 차익실현, 신흥국 내 한국 증시에 대한 기계적인 비중 조절이 핵심이었지만, 매크로 불확실성이 추가 순매도 유인을 제공해왔기 때문. 따라서, 6월 FOMC가 쇼크 수준의 매파로 끝나지 않는 한, 매크로 부담이 더 가중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이를 고려 시, 외국인의 공급 여건이 이전보다 호전될 수 있다는 점을 대응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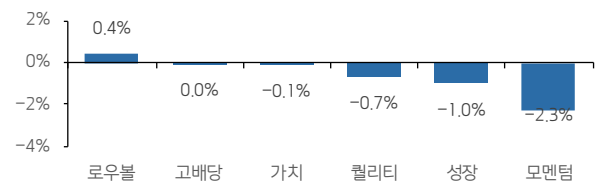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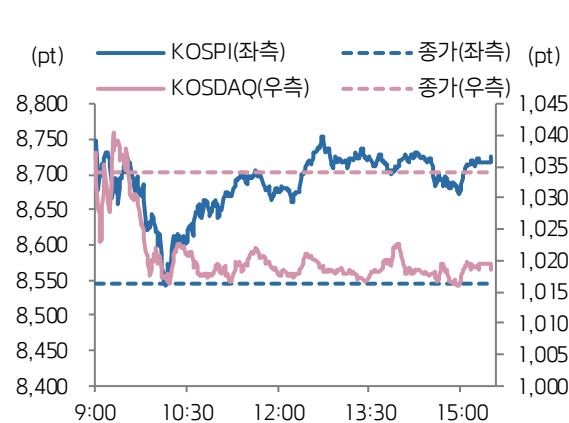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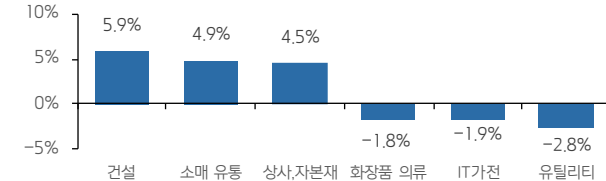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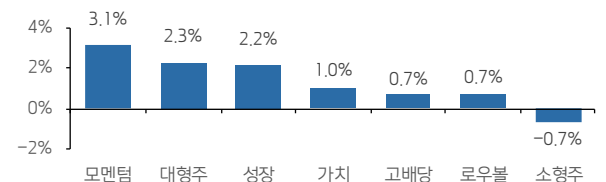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299.24	+0.95%	+10.07%	GM	82.51	-1.86%	+1.46%
마이크로소프트	393.83	-1.48%	-18.57%	일라이릴리	1,122.50	-0.61%	+4.45%
알파벳	373.25	+1.06%	+19.25%	월마트	121.03	+0.17%	+8.63%
메타	600.21	+1.13%	-9.07%	JP모건	331.14	+3.68%	+2.77%
아마존	246.00	-0.01%	+6.58%	엑손모빌	141.86	+0.67%	+17.88%
테슬라	404.66	-1.58%	-10.02%	세브론	180.11	-0.16%	+18.17%
엔비디아	207.41	-2.37%	+11.21%	제너럴일렉트릭	121.03	+0.2%	+8.6%
브로드컴	376.71	-4.37%	+8.84%	캐터필러	945.46	+1.23%	+65.04%
AMD	507.29	-7.3%	+136.87%	보잉	227.49	-0.64%	+4.78%
마이크론	1,020.76	-6.18%	+257.65%	넥스트에라	86.23	+0.1%	+7.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8,726.60	+2.11%	+107.08%	USD/KRW	1,508.30	-0.46%	+4.78%	
코스피200	1,391.74	+2.31%	+129.67%	달러 지수	99.55	-0.08%	+1.25%	
코스닥	1,018.68	-1.48%	+10.07%	EUR/USD	1.16	+0.16%	-1.17%	
코스닥150	1,802.23	-2.13%	+16.47%	USD/CNH	6.76	-0.04%	-3.14%	
S&P500	7,511.35	-0.57%	+9.73%	USD/JPY	160.43	+0.06%	+2.37%	
NASDAQ	26,376.34	-1.15%	+13.49%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51,999.67	+0.64%	+8.19%	국고채 3년	3.715	-2.5bp	+76.4bp	
VIX	16.41	+1.3%	+9.77%	국고채 10년	4.110	-1bp	+72.5bp	
러셀2000	2,939.20	-0.87%	+18.42%	미국 국채 2년	4.052	-1.5bp	+57.9bp	
필라. 반도체	13,294.23	-5.71%	+87.69%	미국 국채 10년	4.439	-3.4bp	+27.2bp	
다우 운송	22,194.19	-0.7%	+27.87%	미국 국채 30년	4.943	-3.5bp	+10bp	
상해종합	4,091.89	-0.11%	+3.1%	독일 국채 10년	2.930	-2.4bp	+7.5bp	
항생 H	8,240.05	-1.62%	-7.56%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6,808.48	+0.71%	-9.87%	WTI	76.05	-5.82%	+33.33%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78.96	-5.06%	+29.76%
Eurostoxx50	6,257.42	+0.45%	+8.05%	금	4,354.40	+0.06%	-1.94%	
MSCI 전세계 지수	1,128.30	-0.26%	+11.2%	은	70.01	-0.24%	-0.84%	
MSCI DM 지수	4,843.60	-0.39%	+9.33%	구리	650.35	+0.12%	+14.46%	
MSCI EM 지수	1,775.32	+0.64%	+26.41%	BDI	2,720.00	-0.33%	+44.91%	
MSCI 한국 ETF	205.91	-2.62%	+111.8%	옥수수	442.50	+0.17%	-3.91%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604.25	+0.62%	+10.72%
비트코인	65,785.16	-1.07%	-24.94%	대두	1,146.50	+1.04%	+7.7%	
이더리움	1,796.01	-1.11%	-39.68%	커피	272.80	+5.25%	-14.7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16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